

## IT 산업 전성기 다시 온다

지난 2년간 정보기술(IT)산업이 침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IT산업이 다시 전성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BW)는 25일자 최신호에서는 '올해 개인용컴퓨터(PC) 성장률이 4% 전후에 머물고 소프트웨어도 한자릿수 성장에 머물 전망이지만 곧 다시 IT업계가 전성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비즈니스위크지는 이러한 전망에 대한 근거로 최근 IT불황 중 PC부문은, 70년대 중대형, 80년대 미니컴퓨터시대, 이후 PC시대로 전환하면서 이전 버전의 컴퓨터가 고전했던 것과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하며, 최근 PC불황도 이같은 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위크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IT산업 고전에 대하여 "IT분야에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IT산업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 십년 뒤어나 성숙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IT혁명은 이전의 철도 및 전기 등 기술변화와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디스크 드라이브 용량이나 인터넷 접속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등 "기초기술이 침체되지 않고 더욱 발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IT산업 가치에 대한 거품론이 득세해 온 가운데 최근 들어 부쩍 IT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전세계 기업의 IT투자는 약 4% 증가하는 등 IT분야가 오랜 기간 겪었던 불황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으며, 내년 기술 소비 증가율은 6%로 높아지고, 2005년에는 지난 10년간의 평균치인 10% 수준에 다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GDP의 10% 이상이 기술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등 최근 침체된 경제회복도 상당부분 IT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비즈니스 위크는 지적했다. 한편 많은 신기술 중에서도 최근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에 컴퓨터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폰과 같이 디지털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유망하며 이는 IT기업들에 수년간 최대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워크지는 또한 IT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을 위해 기존 제품의 성능을 높이기보다 좀 더 싸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NTT 도코모, FOMA용 화상 전화 참가자 호출 신기능 선보여

NTT 도코모는 화상 전화용 FOMA 단말기로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화상 전화 서비스 'M-stage 비주얼 넷'에 주최자가 참가자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동서비스로 화상 전화를 이용한 TV 회의 기능도 설정 직후 개최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 서비스를 지난 9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M-stage 비주얼 넷'에 추가되는 '호출 기능'은 많은 사람이 화상 전화를 할 때 주최자가 참가자를 호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미리 화상 전화 할 것을 결정해 참가 멤버를 설정, 참가자가 비주얼 넷 센터에 액세스해야 했으나, 이 기능에 의해 주최자가 비주얼 넷 센터에 발신하는 것과 동시에 설정된 참가 멤버가 화상 전화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불러 간 참가자의 통화요금은 주최자에게 과금되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TV 회의 기능에 추가된 신기능은 회의 설정 후 곧바로 개최할 수 있다. 종래는, 개최 10분 전까지 회의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었다.

이 외 동사는 동영상 전달 서비스 'M-stage V 라이브'에 대해 콘텐츠 프로바이더로부터 V 라이브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회선에 FOMA나 ISDN, 이서네트(ethernet)의 3종류를 추가했다. 동사에서는 FOMA에 접속해 콘텐츠를 전송하면, FOMA 서비스 구역내에 어디에서라도 라이브 중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V 라이브 서버 접속 비용은 FOMA 및 ISDN가 월액 26,000엔, 이서네트(ethernet)가 월액 55,000엔이다.

## 미 연구소, '향후 IT도 미국이 주도' 보고서 발표

미 정부 기관이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연구개발 센터인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는 지난 7월 18일 세계 각국의 IT 환경을 비교한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미국 'ZDNet'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세계의 IT의 정점에 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연구 센터는 세계 IT 혁명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적인 입장은 향후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는 미 정부가 'IT 비즈니스의 발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세계의 IT 발전 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보다는 늦은 편이라고 지적. 그러나 머지않아 그 예외가 될지도 모르는 나라로 중국을 거명하고 있다.

"아시아는 이미 세계전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폭 넓은 IT 소재나 부품, 제품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IT 제조로는 지배적인 입장에 있다.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주요 IT 플레이어로서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 센터는 지적하고 있다.

## 미 Jupiter 조사, 소비자 대부분은 Smartphone에 흥미 없음



미 Jupitermedia Corporation (Jupiter)는 미국 내 소비자에 대해서 Smartphone 등 고기능의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를 벌여 'Next Generation Handsets : How To Succeed In Wireless Without Really Converging.' 라는 리포트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미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카메라 기능이나 게임, PDA, 음악 플레이어 기능보다는 단말기의 작음과 음성 관련 기능을 중요시하고, 가격도 49달러 이상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다.

Jupiter의 애널리스트 Avi Greengart 씨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음성이나 메시징 기능을 가진 기본적인 휴대전화는 사이즈나 가격을 바꾸지 않고 Java나 BREW의 실행 환경을 탑재한 단말기에 이어 향후도 계속 판매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카메라나 MP3 플레이어 등의 기능을 탑재한 Smartphone에 대해서는 "향후 12개월은 미국에서는 퍼지지 않는다"라는 어려운 예측을 말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원인으로 Jupiter에서는 '미국 소비자는 기능이 여러가지인 디바이스에의 관심이 적은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동리포트에서는 "캐리어나 단말기 메이커는 Bluetooth를 사용해 휴대전화, PDA, MP3 플레이어가 1개의 기능이 되는 것 같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 URL <http://www.internet.com/corporate/releases/03.07.22-newjupresearch.html>

## 일 야노경연, '유비쿼터스' 이해 유저는 불과 30%

야노 경제 연구소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기로부터 인터넷에 접



속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컴퓨팅'에 관한 소비자 앙케이트와 기업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5월부터 7월, 소비자 앙케이트는 6월 13일부터 17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유효 응답 수는 282명이다.

응답자는 20대에서 40대의 남녀로, 남성이 147명, 여성이 135명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유비쿼터스·컴퓨팅 개념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유저가 전체의 28.4%인 반면 '모른다'라고 한 유저가 전체의 45.7%로 과반수 근처에 이르러 아직도 그 개념은 보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비쿼터스·컴퓨팅의 매력에 대한 설문에서는, '다양한 유저가 사용하기 쉬운 단말기 실현'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각 개인에 최적의 서비스 등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대해 동 연구소에서는 "현재의 단말기를 잘 다룰 수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유저가 많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서비스 등은 획일적이어서, 한층 더 정보의 선별이 어려워지고 있는 유저가 적지 않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유비쿼터스·컴퓨팅 실현에 따라 불안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염려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넷을 이용한 범죄의 증가'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동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외 가전 등을 포함한 유비쿼터스·컴퓨팅을 형성하는 기기의 기능에 있어서의 만족도에서는 휴대전화나 PC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PDA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소에서는 "보급이 진행되지 않은 PDA는 개량의 여지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 URL : <http://www.yano.co.jp/press/2003/030725.html>

## 미 정부, 넷 전화 규제 따라 산업 침체

미국 정부가 넷 전화 제공 기업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넷 전화 산업이 침체되는 반면 통화요금은 올라가 자금력이 약한 신흥기업은 폐업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ZDNet'은 밝혔다.

이와 관련 미네소타주는 2주일전 넷 전화 제공 기업인 Vonage Holdings에 대해 전화 사업 면허를 취득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주의 공익 사업 위원회가 넷 전화 기업의 규제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이를 시작으로 미국 내의 넷 전화 제공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한다고 보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콜로라도, 일리노이,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 각 주의 전화 규제 당국은 모두 넷 전화 규제 검토 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점차 넷 전화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전화 규제 당국 생각이 180도 전환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찌기 주와 연방 당국은 Net2Phone나 deltrathree, Packet8 등의 인터넷 전화 회사가 통상의 전화 규제 범위 밖에서 운영되는 것에 반